

# 제1회 나주문학제...나주 문학 위상 드높인다

### 5일 나주문학의 뿌리와 정신 조명 학술포럼...10월까지 다양한 행사 안도현 시인 특강·백호임제문학상 시상·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나주시가 제1회 문학제로 나주문학정신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문학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나주문학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 포럼과 특강, 문학상 시상식,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나주문학의 위상과 가치를 높인다.

5일에는 나주문학의 뿌리와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백호문학관에서 학술포럼으로 행사가 열린다. '나주문학의 지형과 위상'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은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나주의 설화(한정훈 교수), 고전

시가(윤병용 교수), 현대문학(정민구 교수)을 살펴본다.

이어 김신정 교수(호남대), 정영숙 사무국장(나주문인협회), 강대선 사무국장(나주작가회)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시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를 통해 나주문학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10일에는 제9회 백호임제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열리며 '마음'을 주제로 공모한 전국 어린이가 작품 중 40명씩 작품을 선정하고 시

상식 및 시낭송회를 갖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민시인의 반열에 오른 안도현 시인의 특강을 마련했다.

안 시인은 198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해 시와 동시, 동화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는 15개국 언어로 번역돼 세계에 소개됐다.

11일에는 김순이 제주문학관 명예관장이 '제주를 사랑한 백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16세기 문인이자 여행가였던 백호 임제가 남긴 '남방소승(南冥小乘)'을 중심으로 백호 문학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조명한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제5회 백호임제문학상 시상식이 열려 김수열 시인(본상), 임유영 시인(젊은시인상), 박상희 동화작가(나주문인상)

가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영산강축제 기간인 10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영산강정원 문학관 부스에서 시 전시회가 열리고 백호문학관과 타오르는강문학관 시창작교실 수강생 40명이 직접 쓴 창작시가 시민과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과 백호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문학제가 시민들의 감수성을 깨우고 나주문학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전남도 농업인 정보화대회 담양군 '스마트팜' 우수상



담양군이 최근 열린 '2025년 전남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경영 혁신사례와 스마트콘텐츠, 라이브커머스(실시간 농식품 판매방송) 3개 분야에 총 14개 경영체가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담양군은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에서 문원테 스위트베리24 대표가 우수상을 차지했다.

문원테 대표는 부모님의 딸기농장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있는 4H 청년농업인으로 고령이신 부모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스마트팜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진대회 출품작인 '나-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스마트팜'은 스마트폰 보급률은 높으나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크고 고가 장비의 도입으로 스마트팜 전환이 어려운 전남 고령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저비용 센서와 'AI 동반자 농업비서'의 결합된 형태를 도입한 초저비용 스마트팜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담양군 농업인의 정보와 능력 향상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성군, 딸기 재배 농가 꽃눈 분화 검사 무료 지원

장성군이 오는 20일까지 지역 딸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눈꽃 분화 검사를 지원한다.

딸기 꽃눈 분화 검사는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딸기 육묘 생장점을 현미경으로 관찰, 꽃눈 분화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딸기 육묘는 낮이 짧아지는 가을 낮은 온도에서 일정 기간을 기다린 뒤 아주심기(정식)을 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장성군은 눈꽃 분화 검사를 통해 분화 단계를 확인, 포장에 옮겨 심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확 시기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고품질 딸기를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검사 기간 내 딸기 육묘 3~5주를 채취,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가져가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군 "축산악취 제로 청정지역 조성"...농가 현장 점검

### 악취개선 공모사업 12억여원 확보 6개 농가 분뇨처리 실효성 등 점검

함평군이 축산악취 저감 사업 실효성 증대를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2주간 마을과 인접하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한 축산 농가 21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군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악취개선 공모사업에서 12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6개 농가에 물거름 순환 시스템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작동 여부와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군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고, 농가들로부터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은 2026년도 악취개선 공모사업(23개 사업, 35억원)과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의 공동지원시설 개보수 공모사업(16억원) 신청 등 추가 사업



함평군 관계자들이 지역 양돈농가를 찾아 악취 관련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현장점검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농가가 지원시설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군 지난해 합계출산율 1.61명...전국 2위

### 전 생애주기 지원 정책 전국 주목

강진군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에서 합계출산율 1.61명을 기록하며 전국 2위에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0.75명)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은 올해도 이어졌다. 2025년 2분기에는 전남도가 합계출산율 1.04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긴 지역으로 기록됐다.

강진군은 전남 전체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핵심 지역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며 이번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진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지원과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대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강진군 육아수당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후

양육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산후 조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등 세심한 복지정책이 포함된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전국 2위라는 성과를 이룬 강진형 출산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전략"이라며 "주거-일자리-육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선도적인 지방인구수별 대응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국가차원으로 확산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군 9월 한 달간 청년취업 역량강화 교육 20명 선착순 모집

화순군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화순군은 청년성장프로젝트 거점 공간인 청년카페 '청춘오름'에서 9월 한 달간 실무형 OA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서는 AI 활용 및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사무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5세~49세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3일까지 QR코드 또는 고용24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15세~49세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단념에 빠지지 않도록 취·창업 지원과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그동안 라탄 공예, 마크라메 공예, 스마트 스토어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단체 야구 관람 행사도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프로그램, 생활·문화 활동 등을 확대해 '청춘오름'을 청년들의 종합 성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청년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취업 준비와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입니다.